

## 소설 『10번가』에 나타난 보고타 폭력사태의 문학적 재구성

박도란  
(서울대학교 강사)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마누엘 사파타 올리베야의 소설 『10번가(La calle 10)』를 중심으로 콜롬비아 폭력사태로 알려진 '보고타소'가 문학적으로 어떻게 재해석되고 재구성 되었는지를 분석한다. 기존의 콜롬비아 거대사(macro historia)가 '보고타소'를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든 사건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는 반면, 본 연구는 개인과 공동체의 일상에 초점을 맞춘 미시사(micro historia)를 다룬 작가의 전략에 주목한다.

『10번가』는 1940년대 보고타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공식역사에서 소외된 민중의 목소리와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보고타에서 일어났던 폭력사태가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시민에 대한 정부의 억압과 소외에서 비롯된 비극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고발한다.

본 연구는 소설 『10번가』를 중심으로,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발생한 정치적 폭력사태가 문학적으로 어떻게 재해석되고 재구성되었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파타 올리베야는 이 작품을 통해 정부와 권력의 사각지대에 놓인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콜롬비아의 오랜 갈등과 폭력의 역사를 기억하려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주제어 : 『10번가』, 보고타소, 라 비올렌시아, 콜롬비아 문학, 마누엘 사파타 올리베야

## I. 들어가며

1960년에 출간된 마누엘 사파타 올리베야(Manuel Zapata Olivella, 1920-2004)의 소설 『10번가(La calle 10)』는 콜롬비아의 거대사(macro historia)가 아닌, 개인과 공동체의 사소한 일상에 초점을 맞춘 미시사(micro historia)를 다룬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소외된 이들의 삶을 중심으로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40년대 정부와 민중 간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된 보고타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그려낸다. 『치마에서 성인이 태어나다(En Chima nace un santo)』(1964)나 『위대한 신, 창고(Changó, el gran putas)』(1983) 등 아프리카아메리카적인 요소를 활용해 아프리카아메리카인들의 정체성을 긍정하려는 다른 작품들과 달리, 이 작품은 매우 직설적이고 사실적인 묘사를 사용한다. 작가는 콜롬비아의 오랜 긴장과 갈등의 역사에서 주요 매체나 기존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주변부 인물의 삶을 보고타 10번가 주민들의 시선을 통해 현실적으로 담아낸다.

한동안 콜롬비아의 공식 역사는 ‘보고타소(Bogotazo)’를 정치적 혼란의 사건으로만 요약하는 경향이 있었다. 콜롬비아의 역사학자 산드라 파트리시아 로드리게스 아빌라(Sandra Patricia Rodríguez Ávila) 역시 그의 저서 『기억과 망각(Memoria y olvido)』(2016)에서 1930년부터 1960년까지의 콜롬비아 정치·사회상을 다루며, 콜롬비아 정부가 보고타소와 라 비올렌시아(La Violencia)<sup>1)</sup>를 국가적으로 전략적인 방식으로 이용했음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사파타 올리베야는, 공식 서

1) 리카르도 아리아스(Ricardo Arias)는 약 20여 년간 일어났던 수많은 갈등을 ‘내전’이나 ‘혁명’이 아니라 ‘대문자 비올렌시아’라는 하나의 단어로 함축시킴으로써 콜롬비아에서 만연했던 여러 사회적 분쟁이 축소·은폐될 가능성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Arias 2011:88-89). 이는 단순히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국가적 폭력 사태를 한 단어로 치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힐 때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가이탄 암살 사건으로 수도인 보고타에서 소요와 시위가 일어났으며 그 이후 일어난 여러 폭력 사태를 ‘라 비올렌시아’라고 통칭해 버리면, 국가와 정부는 오랜 폭력의 역사를 일으킨 책임자의 역할에서 교묘히 빠져나가게 된다.

사와는 달리, 보고타소라는 역사적 사건을 민중의 목소리와 경험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마누엘 사파타 올리베야의 작품 세계는 대개 아프리카아메리카 민족의 문화를 가시화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긍정하는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10번가』는 작가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아프리카아메리카적 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드러나지 않아 주목을 덜 받기도 했다. 실제로 『10번가』는 비슷한 시기에 나온 『참바쿠: 흑인들의 슬럼(Chambacú, corral de negros)』(1963)이나 작가의 대표작인 『위대한 신, 창고』와 비교해 연구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이유로 이 소설은 더욱 주목받을 만하다. 『10번가』는 작가가 콜롬비아라는 다민족 국가에서 특정 민족의 정체성을 긍정하기 위해 서술하는 대신, 1940년대 보고타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주변부에 위치한 이들과 그들을 대하는 국가의 모순에 대한 문제의식을 미시사적 관점으로 녹여냈다. 이 시기 작가는 ‘흑인클럽(el Club del Negro)’을 결성하고 ‘흑인의 날(el Día de los negros)’을 선언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펼쳤는데, 이는 당시 보고타의 부정하고 불합리한 정치·사회적 현실 속에서 벗어나 저항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신화적 사실주의(realismo mítico)’라는 용어를 만들 정도로 신화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하는 작가의 이 소설 속 문체가 일상적이고 직설적인 언어와 사실적인 묘사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당시 보고타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난 억압과 소외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정치적 의도가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0번가』는 작가의 작품세계 측면에서도 그의 사상이 단순히 ‘아프리카아메리카’라는 민족적 정체성 서술에 그치지 않고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문학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텍스트이다. 본 연구는 이 지점에 주목함으로써 『10번가』의 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마누엘 사파타 올리베야의 소설 『10번가』를 중심으로, 콜

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발생한 정치적 폭력사태가 문학적으로 어떻게 재해석되고 재구성되었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설은 ‘보고타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정확한 시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지만, 인물들이 그 시대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는 주체가 되어 시대상을 묘사함으로써 위에서 아래로 써 내려가는 기존 역사 서술과 차별점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소설 『10번가』는 선행연구가 미비하며, 특히 국내 학계에서는 전혀 다뤄지지 않은 작품이다. 보고타소와 라 비올렌시아는 여전히 콜롬비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계에서 이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콜롬비아의 폭력을 문학적으로 재현한 작품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는 면에서 본 연구는 콜롬비아 문학 연구를 더욱 확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 II. 서술 기법과 공간의 재현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10번가’는 단순한 허구적 배경이 아니라 작가 마누엘 사파타 올리베라의 실제 삶과 깊이 연관된 공간이다. 콜롬비아 북부 해안 로리카(Lorica) 출신인 작가는 콜롬비아국립대학에서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1940년부터 1943년까지 보고타에 거주했다. 당시 그가 다니던 의과대학은 바로 10번가에 인접해 있었는데, 이곳은 시장 상인, 부랑자, 극빈층 등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억압받는 이들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그곳에서의 거주 경험은 그의 소설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실제로 고향을 떠나 수도에서 거주했던 기간 동안 작가는 이곳에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의과대학 건물은 10번가에 있었고, 그 거리에 있는 하숙방에 살았던 나는 다른 이들과 이리저리 어울리며 지낼 기회가 많았다. 그래

서 나는 나 스스로 문학을 말하는 작가나 지식인으로 느낀 적은 없었고, 단지 10번가의 한 인물로서, 그 거리의 주민들, 강아지들과 함께하며, 학교 동기들과 오가고, 시장에 가고, 상인 주인들과 대화하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그것은 비참함, 질병, 가난, 바이러스, 기생충으로 가득한 세계였다. (Alzate 2011:37)

상기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작품 속 10번가는 작가가 직접 생활하며 느꼈던 실제적 경험이 반영된 장소이다. 이 시기 사파타 올리베아는 보고타에서 ‘흑인클럽’을 결성하고 ‘흑인의 날’을 선언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펼쳤다(박도란 2023:101-104 참고). 그러나 소설 속 10번가는 그가 단순히 살아냈던 물리적 공간을 넘어선다. 작가의 경험과 시선이 투영된 이곳은 콜롬비아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사회적 갈등이 응축된 문학적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이 소설은 특정 인물에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인간 군상과 사건들을 서술한다. 작가는 콜롬비아 수도 한가운데에 살고 있지만, 사회의 중심부로 편입되지 못한 술집 주인, 창녀, 시장 상인 등 불안하고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세계에 집중한다. 작품은 크게 「파종(Semilla)」과 「수확(Cosecha)」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는 씨앗을 뿌리는 과정을 의미하는 1부 「파종」에서 10번가의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정부와 민중 간의 긴장과 갈등을 통해 정부에 대한 불신, 갈등, 혐오감이 형성되는 과정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2부 「수확」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중의 분노와 규탄이 폭발하며, 앞서 심어진 불신의 씨앗이 사회적 저항으로 결실을 보는 과정을 그린다. 이로써 작가는 정부와 민중의 대립이 어떻게 사회적 폭력과 저항의 형태로 심화되는지를 구조적으로 드러낸다.

소설의 첫 번째 장은 사투르니나(Saturnina)의 죽음과 그 소식을 알게 된 ‘펠루오’(el ‘Pelúo’)의 울부짖음으로 시작한다. 병환으로 병원을 돌아다니지만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길거리에서 사망한 아내와 그 옆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꼭 안겨있는 어린 아들의 모습을 바

라보며 슬퍼하는 ‘펠루오’의 모습은 별안간 “이 망할 놈의 개!”(Zapata Olivella 2020:30)<sup>2)</sup>라는 말과 함께 장면이 전환되며 에파미논다스(Epaminondas)가 그의 개와 함께 등장한다. “선술집의 불빛이 이미 꺼져버린”(30) 새벽, ‘펠루오’가 사망한 아내를 발견한 시간에 에파미논다스는 자신의 개와 함께 노새가 이끄는 수레에 짐을 싣고 거리를 나선다. 그 소리에 또 다른 등장인물인 파르메니오(Parmenio)는 잠에서 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파미논다]는 수레 위에 앉아 메르카도 광장에서 짐을 실을 준비를 마쳤다. 고삐를 잡아야 하는 손만 내놓은 채 폰초를 꼭 끼입고 10번가의 경사면으로 향하는 대문 밖으로 수레를 이끌었다. 그 덜컹거리는 소리에 눈을 뜬 파르메니오는 너무 오래 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31)

밖에서 들려오는 에파미논다스의 수레 소리에 일어난 파르메니오는 자신의 가족을 깨운다. “눈을 뜨거라, 애들아. 오늘은 어제보다 더 배고플 거야!” (31) 파르메니오의 딸과 함께 그의 임신한 아내는 허기를 느끼며 “술집 술주정뱅이들에게 밤새 구걸한 이후 처음으로 삼킨”(32) 침을 목에 넘기며 길바닥에서 몸을 일으킨다. “구두 왁스로 까무잡잡해진”(32) 바지와 마치 “추위를 막는 방패처럼”(32) 그의 조끼를 입은 아들은 아버지가 깨우자 “신문 조각으로 몸을 싸맨 채 잠을 자고 있던 그의 친구 무리에게로 달려갔다.”(33) 그리고 마치 “종이에 싸인 시체들” 같은 이 소년들 사이를 지나던 ‘펠루오’는 그제서야 자신이 사투르니나를 물을 관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처럼 소설 『10번가』는 작가가 ‘행동주의적 기법(el método behaviorista)’이라고 언급한 독특한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마치 카메라를 들고 360도 회전하며 주변을 촬영하는 것처럼, 감각스럽고 빠른 장면 전환을

2) Manuel Zapata Olivella(1960), *La calle 10*, Cali: Universidad del Valle, 2020. 앞으로 본문을 인용할 때 괄호에 페이지만 표기함.

통해 10번가 곳곳의 풍경을 생생하게 포착하는 기법이다. 작가 마누엘 사파타 올리베야는 그의 소설을 통해 당시 라틴아메리카 작가들의 일반적인 글쓰기 방식과 의도적으로 차별화된 스타일을 추구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북미 소설에서는 작가가 이야기에 개입하는 것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인물들의 사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단순히 사건을 지켜보는 촬영기사처럼 서술하는 방식에 관심이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라틴아메리카 작가들은 여전히 등장인물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삶, 자신의 경험을 대변하는 대변자로 그려내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 『10번가』에는 이 모든 것이 일종의 사진처럼 담겨 있으며, 고츨(Gochum)이 말했듯이 이는 콜롬비아 문학사에서 새로운 소설을 향한 첫 번째 시도였다. (Pedraza Quinche 2016:104-105)

상기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설은 작가의 감정적 개입을 최소화하여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을 병치시키는 방식으로 묘사한다. 서술자는 작품 속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나 정치적 입장을 직접적으로 표명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화자는 10번가를 “목격자의 시선으로 개인적인 경험과 사건들을 기록하는 기자”(Díaz-Granados 2003:45)가 되고, 독자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현실의 목격자가 되는 효과를 얻는다. 이와 같은 서술 방식은 독자가 단순히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시 시대상을 직접 목격하고 그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효과를 얻게 된다.

소설 속 배경인 10번가에는 다양한 장소가 등장하지만, 그중에서도 ‘치체리아(la Chichería)<sup>3)</sup>라는 장소는 특히 주목해 볼 만 하다. “커다란 술에서 꺼낸 고깃덩어리를 송곳으로 찢어대는” 주인 토마사(Tomasa)가

3) 일반적으로 전통 발효 음료인 치차(chicha)를 판매하는 공간인 치체리아는 주로 서민들이 모이는 술집이다.

마치 “지옥에 있는 악마의 모습”(52)을 연상케 하는 이곳은 10번가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성격의 등장인물들이 왕래하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묘사된다. 파리가 날아다니고 술 취한 손님들의 소란스러운 대화가 오가는,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이 공간에서 소설 속 다양한 사건들이 펼쳐진다. 이처럼 주변부적이고 무질서한 모습으로 묘사되는 소설 속 치체리아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를 넘어 10번가에 있는 서민에게 사회·문화적으로 깊은 영향을 주는 공간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소설 속 치체리아는 단순한 술집의 기능을 넘어, 다양한 사회계층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복합적 공간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이곳에서 주인 토마사는 단골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사회의 주변부 인물인 ‘페코사’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 동시에, 공간의 한편에서는 시인 타마요(Tamayo)와 마마토코(“Mamatoco”)가 자신들이 편집하는 신문 <민중의 목소리(La voz del pueblo)>의 기사를 집필하는 편집실로 기능한다. 이와 같은 장면은 치체리아가 단순한 소음과 대화가 뒤섞인 혼돈의 장소인 동시에 민중의 목소리가 수렴되고 담론화되는 공간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들은 일상적인 대화와 소음에 가려진 서민들의 목소리를 글로 기록하고, 이를 통해 대중의 의식을 일깨우고자 했다.

민중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정부의 억압을 인지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대중을 계몽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들의 신문 <민중의 목소리>는 저항적이고 계몽적인 성격을 띤다. 이는 길거리 공연을 하는 ‘아르티스타(el Artista)’가 낭독했던 신문 사설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민중에게는 그들의 억압자에게 대항하는 것 외에 다른 출구는 남아있지 않다. 당신 덕에 부를 축적한 이들이 선동의 채찍으로 당신을 가난의 길로 몰아가는 것을 언제까지 허용할 셈인가...”(62) 그가 이 사설을 읽자마자 별안간 몇몇 경찰들이 곤봉을 휘두르며 나타났다는 사실은 이 신문의 계몽적인 성격과 파급력을 증명한다. 경찰의 등장으로 아르티스타의 공연을 보기 위해 모여있던 대중들은 황급히 달아난다.

시위를 주도하는 연설자들을 수색하는 경찰들을 피하기 위해 치체리아로 들어선 <민중의 목소리> 편집자인 시인 타마요 주변으로 주인 토마사를 비롯하여 낡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모인다. 그들 앞에서 타마요는 “혁명은 총을 주고 저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혁명을 이루는 법을 배워야 해요. 책을 읽고, 우리 세력을 계산해서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64)라는 설교에 “그토록 좋아했던 치차론 씹기를 멈추고 마치 메시아의 말이라도 들은 듯 시인을 바라”(64)본 에파미논다스는 혁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된다.

이처럼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우며 무질서하고 야생적인 공간으로 묘사된 10번가는 이후 <민중의 목소리>의 또 다른 편집자인 ‘마마토코’의 죽음을 기점으로 소설 속에서 단순한 보고타의 거리가 아니라, 국가적 학살이 일어난 상징적 장소로 변모하며, 치체리아는 일상적 삶의 장소이자 동시에 정부에 대한 반란이 시작되는 정치적 장소가 된다.

### Ⅲ. 소설 속 사회적 갈등의 형상화

19세기 국가형성기의 콜롬비아는 정치적으로 소수의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과두지배체제가 형성되어 양당 간의 분쟁 그리고 가톨릭주의와 반(反)가톨릭주의의 갈등 양상을 보인다. 20세기에는 분쟁의 장이 다양한 시민 계층으로 확대된다. 이 시기 분쟁의 특징은 이 전까지 불평등과 불의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학생, 상인, 농민, 시민들이 반기를 들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20세기 중후반부터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세력들이 점차 조직화되어 정부와 무장 혁명세력 간의 분쟁이 본격화되었다.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분쟁은 시기별로 갈등의 원인과 대립 상대가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충돌이 가장 과열되게 진행되었던 20세기에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는데, 1948년 발

생한 ‘보고타소’와 그 이후 이어진 ‘라 비올렌시아’ 기간은 정부와 시민 간의 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1948년 4월 9일 민중의 반란에 대해 당시 대통령이었던 오스피나 페레스(Luis Mariano Ospina Pérez, 1891-1976)는 공산주의의 사주를 받은 움직임으로 발표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벌어진 이념 갈등은 ‘민주주의 vs. 공산주의’라는 대립을 발생시켰으며, 1948년 5월 미국의 주도로 ‘제9회 미주회의(IX Conferencia Panamericana)’를 수도에서 개최한 콜롬비아 정부는 보고타에서 일어난 폭력사태를 규명하기에 앞서 그 원인을 공산주의 단체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박도란 2024:138-139). 이는 콜롬비아는 민주적인 나라이며 국가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공산주의라는 외부적인 요인에서 기인한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듬해 같은 날 사파타 올리베야는 “4월 9일. 공산주의적 해석”(El nueve de abril. Interpretación comunista)<sup>4)</sup>이라는 글을 기고하며 1948년 4월 9일 가이탄 사망 이후 일어난 국민적 소요를 회고한다. 이 글에 따르면 보고타에서 일어났던 사태는 오스피나 페레스 대통령이 발표한 것처럼 단순한 “공산주의자”들의 공작도 아니고 몇몇 반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이탄을 지지하는 무리들의 약탈”도 아니었다. 작가는 이 사건이 “콜롬비아 전역에서 일어난 모든 민중 투쟁의 정당한 상속자”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해석한다(Palacios 2018:127). 그에 따르면 보고타소는 외부 요인에 의해 발발한 것도, 소수의 무리에 의해 벌어진 일도 아니다.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었던 양당 체제에 염증을 느끼고 정치·사회적 불공정, 부도덕성, 불평등에 환멸을 느낀 콜롬비아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일으킨 반란인 것이다.

사파타 올리베야의 이러한 주제 의식은 소설의 1장에 해당하는 「파종」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파종」이라는 제목이 설명하듯, 작가는 정부

4) 안타깝게도 해당 글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유로 유실되어 원문을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 글을 다른 다른 연구에서 인용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개한다.

혹은 지배층에 대한 갈등과 반목 그리고 불안함이 콜롬비아 민중들 사이에 심어지고 서서히 짙어지는 순간들을 묘사한다. 특히 소설 속 10번가에서는 정부와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되거나 탄압받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예컨대, 메르카도 광장에서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파르메니오의 사례는 이러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경찰차의 사이렌, 전차의 종소리, 앰블런스과 사람들의 고함소리가 뒤섞인 곳에서 아들 가브리엘의 시신이 수습되는 동안 경찰은 파르메니오를 근처 경찰서로 데려간다. 죽은 아들, 길거리에서 쓰러진 임신한 아내, 굶주린 다른 자녀들을 생각하며 아무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분노에 사로잡힌 파르메니오는 경찰에게 강력하게 항의할 것을 다짐하게 된다.

같은 시간, 마치 카메라를 돌리듯 전환된 장면에서는, 같은 장소에 있던 ‘펠루오’가 등장한다. 사망한 아내의 시신을 대학병원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공동묘지로 갔던 ‘펠루오’는 그곳에서 경찰에게 발견되었다. 사투르니나의 시신을 대학병원에 빼앗기고 경찰서로 간 그는 신문 기자들 앞에서 경찰의 심문을 받게 된다. 경찰은 그에게 왜 아내를 살해했는지 묻는다. “생전에는 그녀에게 관심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에 이토록 관심을 가질 것이라”(39) 생각지도 못했던 그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그를 강하게 다그치던 경찰관은 뒤이어 등장하는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종이를 건네받는다.

—여기 부검결과입니다.

신문관은 그 종이를 눈앞에 가져와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나서  
는 경찰관들에게 마지못해 명령했다:

—석방하라. 살인이 아니었다. (39)

위의 인용문에서 독자는 당시 빈번하게 발생했을 경찰의 권력 남용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경찰에 의해 아내를 죽였다는 혐의에서 벗어난 이후 그는 자신의 동의 없이 아내 사투르니나의 시신이 의과대에 기증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은 경찰의 권력 남용은 시민들로 하여금 관공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이후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시민들이 관공서를 공격하게 된 이유를 짐작케 한다. 이처럼 『10번가』는 보고타소를 ‘폭동’이 아닌 ‘시민 주체의 반란’으로 재해석하며, 파르메니오나 ‘펠루오’와 같은 개인의 고통이 어떻게 집단적 저항의 씨앗이 되는지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

이처럼 소설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또 다른 충돌이 일어나며 반란의 기운이 발생한다. 메르카도 광장의 상인 대표인 ‘카피타나(la Capitana)’는 상인들에게 세금을 더 징수하려는 광장 관리자에 맞서기로 한다. ‘카피타나’를 중심으로 모인 또 다른 상인들은 세금 과당 징수라는 부당함에 항의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움직임을 보인다.<sup>5)</sup>

—새로운 세금 제도를 타도하라!— 든든한 그녀의 무리가 광장의 세금징수원과 경비원 여섯 명과 맞서고 있을 때 “카피타나”가 다시 한번 외쳤다. 그 외침이 터져 나오자마자 그녀는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무방비 상태인 그들의 얼굴에 잘 익은 토마토 두 개를 던졌다. 그것이 마치 약속된 신호라도 되듯이 그녀의 무리는 혐오스러운 세금징수원들에게 던지려고 달걀, 감자, 토마토, 가지 그리고 손에 잡히는 무엇이든 움켜잡았다. 불시에 벌어진 공격에 그들은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했고, 문을 걸어 잠그기도 전에 “카피타나”의 강인한 팔과 몸이 그들을 잡고 길을 막아섰다. 그 틈으로 온갖 고함, 토마토, 욕설이 비집고 들어왔고, 겁에 질린 채 피난처를 찾아 올라간 직원들의 미약한 저항을 짓밟았다. (42)

5) 이 장면에서 ‘카피탄(el Capitán)’이 아닌 ‘카피타나(la Capitana)’가 여성 상인들과 함께 남성 관리인에 대항하는 모습은 여성 인물을 통해 젠더적 저항의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더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더 넓은 의미에서 정부와 권력층에 대항하는 서민과 피지배층의 저항에 집중하고자 한다.

또 다른 갈등과 전복의 예는 ‘아르티스타’와 ‘오소(el Oso)’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연히 거리에서 첩추가 굵은 기형적인 남성이 버스를 벌기 위해 동물처럼 공연하는 모습을 본 ‘아르티스타’는 그를 이용해 돈을 벌기로 결심한다. ‘아르티스타’는 ‘오소’의 신체적 취약성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경제적 착취자이며, ‘오소’는 자신의 육체를 이용당하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피착취 계급의 모습을 대변한다. 이들의 관계는 거시적인 지배-피지배 관계를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아르티스타’는 ‘오소’를 데리고 길거리 공연을 다니며 곰처럼 춤을 추게 한다. 그는 관객들에게 구걸이 아닌 공연의 대가로 돈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지만, 현실은 ‘오소’의 노동을 착취하고 그 수입을 공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채 모두 독점하는 행태로 이어진다. 이러한 착취의 반복은 결국 ‘오소’가 중요한 순간에 ‘아르티스타’를 살해하는 원인이 된다.

그[‘아르티스타’]는 늘 휘두르던 회초리를 위협적으로 치켜들었고, ‘오소’는 그것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다. [...] 그가 회초리를 휘둘렀는데, 거울 앞에 선 자신의 그로테스크한 자태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도 된 듯이 빙빙 돌렸다. 한쪽 구석에 웅크린 채 앉아 놀란 척, 기쁜 척 연기하던 ‘오소’가 그의 모든 동작을 이상하리만큼 초조하게 살펴보고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날카로운 단검이 숨겨져 있었다. 거울 앞에서 보이지 않는 관객들의 박수에 거듭 인사를 하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이는 그를 본 바로 그 순간 ‘오소’는 온몸의 체중을 실어 그의 등 위로 덮쳤다. 비명이 터져 나오고 이내 피를 토해내며 숨을 헐떡였다. ‘아르티스타’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자 그는 회초리를 빼앗아 무릎에 대고 산산조각을 내었다. (113)

위 인용문에 나오는 ‘오소’의 살해는 단순히 개인적인 분노 표출을 넘어 피지배자가 지배자에 맞서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택하게 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소설 속에서 대립과 갈등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

들의 이권을 지키려는 단순한 반항을 넘어 그동안 일어난 억압에 대한 피지배층의 반란이 될 보고타소의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García 2013:46). 소설 속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의 10년간 사람들은 사회·정치적으로 철저히 소외된 이들이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직업, 교육, 치안, 보건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그들의 의견과 불만은 정부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다. 그들의 갈등은 비단 정부와 시민 간에만 발생한 일은 아니었다. 작가는 ‘보고타소’를 해설한 글에서 국민이 일으킨 반란의 근원은 굶주림과 비참함에도 있었지만 “정부 전복을 향해 나아가던 “정치적 정서”를 분열시키려던 국가의 이간질 정책”(Palacios 2018:127)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작품 속 경찰관 령히포(Rengifo)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다. 소설 속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던 그는 자신의 애인 ‘차바(Chava)’를 만나 허름한 호텔로 들어가게 된다. 낡은 침대와 더러운 담요가 있는 그 좁은 방에서 불현듯 과거의 그가 겪었던 굶주림과 궁핍, 젊은 시절부터 억눌러온 본능들(66)이 떠오른 그는 차바에게 진실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갈망으로 내밀한 교감을 시도한다.

좁은 방에 있는 그 여자의 존재는 령히포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게끔 만들었다. [...] 만약 정부가 그를 밀림에 추방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전역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열병으로 거의 죽음에 이를 뻔했다. 하지만 도시에서의 굶주림은 말라리아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지독했다. [...] 그는 공장과 사무실에서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헛수고였다. 바로 그때 친구가 노골적이면서 단도직입적인 제안을 해왔다:

—네가 정부 편에 선다면, 경찰 자리를 하나 줄게.

그는 양심에 반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66)

상기 인용문을 통해 작가는 령히포라는 한 인물의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 국가가 시민을 내부 분열자로 만드는 과정을 묘사한다. 극심한 굶

주립과 생존에 대한 열망과 절망은 그로 하여금 윤리적 타협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령히포의 고백은 당시 정부가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문제를 이용하여 그들의 체제 유지 도구로 삼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보고타소의 원인이 단순히 외부적 갈등이 아닌, 내부에서 기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한, 자신이 입을 경찰 유니폼에 부끄러움을 느낀 령히포에게 차바가 왜 그러냐는 묻는 질문에 “빈곤이 너무 심해. 민중은 이 배고픔을 더는 견딜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의 시위를 막으려고 경찰을 늘리는 거야.”(66) 라고 대답하는 부분은 정부가 불공평한 사회에 불만을 느낀 시민들의 결속력을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 IV. 지식인의 역할과 민중의 저항

소설 『10번가』 속 등장인물들은 국가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이들이다. 먹을 것도 없이 거리에서 노숙하는 아이들, 시장의 상인들, 창녀들, 부유한 집의 가정부 또는 이름도 없이 그저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들 등 그들 대부분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국가적 차원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로 사회 통합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인물들이다. 이들은, 양첼 라마의 표현을 빌리자면, ‘문자 도시’에서 배제된 이들이다. 사회적으로 배제당하고 정당한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한 채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는 소설 속 유일한 지식인인 시인 타마요와 마마토코를 통해 전달된다.

허름한 술집 안에서 시인 타마요는 뜨거운 사회주의의 정신이 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종이에 써 내려갔다. “마마토코”는 추위로 말려 들어간 친구의 손에 있는 펜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변형되고 큰 글씨에서 상류층을 향한 혹독한 문장들이 피어났다. 이

제 편집자가 이 글을 사실로 내도 상관없다. 이제는 <민중의 목소리>라고 불리는 그들의 신문이 독자들 사이에서 예사롭지 않을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카페, 길모퉁이, 광장 곳곳을 비롯하여 모든 곳에서 그들의 고발에 환호했고, 일각에서는 정부도 그들을 두려워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73)

이들은 소외된 민중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리인으로 묘사된다.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타마요는 주변부에서 소외된 민중의 목소리를 정부에서 들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텍스트로 ‘문자화’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타마요의 행동을 앞에서 지켜보는 마마토코는 문자화된 민중의 목소리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민중과 지식인의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다. 이들의 글은 보고타 시내 전체로 확산될 만큼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시민들에게 집단적 정체성과 저항 의식을 심어준다. 이처럼 소설 전반부에서 묘사되던 정부와 민중,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긴장을 깨뜨린 사건은 바로 <민중의 목소리> 발간인 중 한 명인 마마토코의 살해 사건이었다.

“마마토코”의 죽음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경쟁하듯 달려와 거리 한곳에 모여들었다. 스물여섯 개의 자상으로 피가 쏟아져나왔다. 의심 많은 독수리들처럼 매우 진지한 경찰관 세 명이 시체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10번가 주민들의 참배에 무력하게 있었다. 청과물 사장들은 자신들이 매고 있던 짐도 잊은 채 욕설이 담긴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저주받을 살인자들!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일 수 없으니까 그 혀를 잘라버린 거야!

(86-87)

주지하다시피 1948년 4월 9일에 일어난 보고타소 (혹은 ‘보고타 사태’)는 콜롬비아 민중을 대변하던 자유당 소속의 정치인 가이탄 살해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그를 살해한 범인으로 로아 시에라(Roa Sierra)

가 현장에서 잡혔지만, 보고타에서는 그의 사망을 규탄하며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했다. 흥미로운 점은 소설 속에서 ‘보고타소’와 유사한 사건의 시작이 재구성될 때 민중에게 자유 사상을 고취시켰던 한 정치인의 죽음이 아니라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문을 발간하는 인물의 살인 사건에서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살해당한 자유당 지도자 호르헤 엘리에세르 가이탄을 구현한 인물 마마토코”(Alzate 2011:40)와 같이 ‘마마토코’의 죽음으로 시민의 봉기가 시작된 점을 이유로 그를 가이탄이 작중 인물로 의인화된 인물이라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으로 봉기가 시작된다는 점 외에 두 인물 사이에 공통점은 없다. 더구나 ‘마마토코’는 소설 속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었으며, 그의 죽음은 여러 의문점을 남기며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렇다면 사파타 올리베야는 시민 혁명의 시작을 왜 가이탄의 암살 사건이 아니라 ‘마마토코’가 살해된 사건으로 표현했을까?

실제로 ‘마마토코’<sup>6)</sup>는 권투 선수 출신의 저널리스트였다. 그는 “처음에는 복싱 링에서, 그리고 조금 후에는 그의 신문 <민중의 목소리>로 언제나 그의 열렬한 팬들의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가 발간하던 좌파 성향의 신문에서 빈번히 당시 정부의 부정과 비리를 들추어냈으며, 결국에는 그가 당시 대통령인 알폰소 푸마레호(Alfonso López Pumarejo)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음모에 빠져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결국 ‘마마토코’는 등에 수차례의 자살을 입으며 사망한 채 발견된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가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6) 본명은 Francisco Anastasio Pérez(1903-1943)이다. ‘마마토코(Mamatoco)’는 콜롬비아의 북부 산타 마르타(Santa Marta)에 있는 한 마을로, 그가 태어난 곳이다. 콜롬비아의 유명한 권투 선수 출신으로, 정치 활동가이자 저널리스트였는데, 그가 실제로 시인 라파엘 타마요(Rafael Tamayo)와 발행했던 신문이 <민중의 목소리(La voz del pueblo)>였다. 보름마다 발행되는 이 신문은 경찰서 내 비리와 횡령을 비롯하여 경찰관들의 가혹 행위를 고발하기도 했으며(<Tiempo>, 2001.5.15.), 정치인의 비리를 파헤치기도 했다(<La Nueva Prensa>, 2020.07.13.). 이 신문은 일간신문에 비해 그 파급효과가 큰 것은 아니었지만, 정부의 부정과 부도덕에 대한 폭로로 인해 ‘마마토코’가 정치적 표적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당시 유력 신문인 <엘 시글로(El Siglo)>에서 그의 죽음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신문사는 “마마토코의 죽음은 국가가 저지른 범죄이다”, “우리는 정부가 살해 명령을 내렸다고 믿는다”고 후안 페레스가 밝혔다” 등의 신문 기사를 쏟아 내며 정부를 집요하게 공격하였으며(<La Nueva Prensa>, 2020.07.13.) 이에 국민은 정부에 분노와 적대감을 느끼게 되었다. 국민은 당시 정부에 대한 피로, 환멸, 적대감을 가이탄 정권에서 바뀔 것이라 기대했지만, 1948년 보고타 거리 한가운데에서 그들의 지도자가 암살당하게 되면서 분노로 바뀌게 된다.

그렇다면 소설 속에서 민중 반란의 시작이 가이탄이 아닌 ‘마마토코’ 살해 사건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사파타 올리베야에게 ‘1948년 4월 9일’은 시민이 정권에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날이지만, 그 사건은 한 정치인의 죽음에서만 비롯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누엘에게 보고타소는 “더 넓고 장기적인 과정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더 이상 민중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노동계급의 빈곤과 굶주림 위에 세워진 양당체제의 안정성조차 유지할 수 없음”(Palacios 2018:125)을 증명하는 혁명이었다. 호르헤 엘리에세르 가이탄 암살 사건(1948년)으로 보고타소가 촉발되고 그의 사망은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지만, 그보다 몇 년 전에 발생한 ‘마마토코’ 살해 사건(1943년)이 이미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다. ‘마마토코’가 사망했을 당시 이미 정치적인 동요가 일었으며, 보고타소는 ‘마마토코’ 살해 사건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이미 쌓여온 사회적 모순과 민중의 오랜 고통과 불만이 한계점에 다다른 순간 그 누적된 분노가 마침내 폭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가이탄의 등장과 함께 1940년대 콜롬비아 농부와 노동자들이 사회 변혁을 꿈꾸었던 것처럼, 소설 속 인물들은 치체리아에서 타마요와 ‘마마토코’가 주장하는 혁명으로 공정하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에 동요하기 시작한다. 사파타 올리베야는 ‘마마토코’의 죽음을 한 개인의 사망이 아니라 정치적인 범죄로 풀어낸다. 그

는 “위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목소리, 민중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그 외침을 더 강력하게 만들 뿐”(88)이라고 하며, 그의 죽음은 “민중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88) 사건임을 강조한다. 타마요는 연설을 통해 “이 범죄는 10번가를 넘어 널리 고발할 것”(88)이라 선언하며, 그의 연설로 분노한 민중은 함께 거리로 나간다.

‘마마토코’의 죽음이 촉발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또 다른 충격이 벌어지게 되면서 치체리아의 주인 토마사가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경찰과 민중의 충돌은 한층 더 격화된다. “살인자들이 새로운 희생자로 범죄를 숨기려 한다!”(89)는 타마요의 외침으로 민중은 분노를 분출하게 된다. 마마토코의 사망이 정부와 민중간의 오랜 갈등에 불을 지피는 도화선이 되었다면, 두 번째 토마사 사망 사건은 민중의 봉기가 단순한 저항을 넘어 폭력적으로 전환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소설 『10번가』에서 마마토코와 토마사라는 두 인물의 서사를 통해 작가는 시민들의 항쟁이 폭력적으로 변모하게 된 과정을 문학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 V. 소설 속에 재현된 폭력과 저항의 상징성

1940년대 보수당 집권 당시 콜롬비아 민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자유당 출신 정치인 가이탄 피살 사건으로 보고타 시민들은 보수당의 정치 공작이라는 이유로 공권력의 상징인 보고타 시청과 법원 그리고 여러 국가 기관에 방화를 저질렀다. 또한, 보수주의자들이 수호하는 가톨릭 종교의 권력에 대한 대항으로 신학교와 대주교 궁전과 같은 종교 건물을 훼손시키기도 했다(Arias 1998, 42).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진행 중인 도시의 상황은 소설 속에서 ‘페코사’가 길거리를 걷는 장면을 통해 사실적으로 묘사된다.

그녀는 손을 코에 가져다 댔다. 그리고는 잠시 스쳤던 향기가 사라지고 그 대신에 휘발유 냄새가 강하게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 그제서야 그녀는 도시 사방에서 치솟고 있는 불길을 보았다. 평생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는 불이 건물들을 집어 삼키고 있었다. 별안간 엄청난 폭발음이 들리고 건물의 벽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졌다. 아이를 품에 안은 여성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리다가 무거운 짐을 들고 움직이는 이들과 부딪혔다. 텅 빈 유모차, 깨진 거울, 유아 변기가 여기저기 굴러다녔다. (110)

페코사의 시선으로 그려진 이 장면은 혼란스러운 도시가 파괴되는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공포에 휩싸인 민중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라틴아메리카 문화비평가 멜로 루이스는 『10번가』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타소를 실패한 혁명으로 그려낸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는 민중의 좌절과 산발적으로 일어난 폭력이었다는 점이며, 두 번째로는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능력이 부족했던 지식인들의 실패라는 점이다. 그는 소설 속 시민의 반기에 주목하며 권력을 전복시키고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싸운 시민의 모습을 낭만적으로 그려내며 콜롬비아의 혁명적 유토피아를 열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Melo Ruiz 2022). 다음 인용문과 같은 소설 장면에 주목한다면, 이러한 비평 역시 일정 부분 설득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나 죽을 것 같네, 형제여! — 처음으로 자신의 피에 젖은 것을 본 작은 정육점 주인이자 “테프레시오” 살해자가 더듬더듬 말했다. —우리가 복수해주겠네. —에파미논다스가 쓰러진 곳 근처에서 그에게 대답했다. —여기로, 뛰어와요, 여기예요! 나는 죽을 것 같으니 어서 이 총을 받아요! — 로시타가 그 무기를 잡자 쓰러져가던 노동자의 얼굴에 마지막으로 한 줄기 기쁨이 내비쳐졌다. (96-97)

국가라는 거대 권력의 병력에 의해 죽음을 앞둔 에파미논다스는 예

전에 자신의 개를 살해했던 정육점 사장에게 말을 건넨다. 에파미논다스 옆에서 함께 쓰러져가는 이름 모를 이는 자신의 무기를 넘겨주려 하고, 그의 총은 10번가의 어린 창녀 로시타가 건네받는다. 작가는 정부의 억압에 맞서 대항하는 이들은 결국 10번가에 거주하는 이들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힘겹게 살아내던 민중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10번가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직종과 각양각색의 시민들은 모두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모습을 보이지만, “악한 정부 타도!”(93)를 외치며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채찍을 든 민중이었다.

그러나 소설은 결코 혁명을 낭만적으로 그려내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실제 보고타에서 일어난 폭력사태는 단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콜롬비아 수도에서 일어난 시민들의 반기에서 라 비올렌시아까지 이어진 콜롬비아의 분쟁과 갈등의 역사를 고려해 본다면, 이 작품은 민중의 봉기를 낭만적으로 그려낸 것이 아니라 종결되지 않은 채 이후에도 이어질 폭력의 역사를 예고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소설의 후반부, 민중 봉기로 촉발된 폭력사태가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파르메니오의 아내 테올린다가 아들을 출산한다. 새로 태어난 아이를 보며 얼마 전 길거리에서 사망했던 아들 가브리엘을 상기한 파르메니오는, 아내의 소망과 달리 아이의 이름을 ‘가브리엘’이 아닌 ‘마마토코’로 결정한다. 소설 속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다 사망한 가브리엘은 부당한 사회에 순종했던 과거의 민중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련의 폭력사태를 경험하며 파르메니오는 “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힘과 낙관”(125)을 내면화하게 된다. 이는 그가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국가의 억압에 저항하는 주체적인 역사 행위자로 거듭났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의 아들이 부여받게 된 ‘마마토코’라는 이름은 새로운 시대의 정당한 저항과 정치적 대의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기능한다.

사파타 올리베야에게 1948년 4월 9일은 “[...]분홍색과 푸른색의 과두정치 사이를 오가며 반세기 동안 흔들리는 해먹 속에서 잠을 자고 있

던 젊은이들에게 위대하고 필요한 교훈을”(Palacios 2018:128) 준 날이다. 그는 소설을 통해 콜롬비아 사회가 외면해 왔던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작가는 소설 속 인물들을 통해 이 사건이 그저 우발적인 폭동이 아니라, 오랜 기간 억압받아 온 민중의 분노가 폭발한 필연적 결과였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보고타소’가 콜롬비아의 역사에서 폭력의 종착점이 아닌, 그 연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작가의 생각은 『10번가』 마지막 부분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희생자들 속에서 실종된 자신의 연인 ‘차바’를 찾아다니던 령히포는 대규모 민중봉기로 인해 희생당한 이들의 규모를 직접 목도한다. 그곳에서 그는 “헛되이 희생된 이들의 삶”(128)에 안타까운 마음과 민중의 분노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배신감 등 복합적인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내적 갈등을 겪는 중에 시인 타마요와 마주치게 된다.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았고 령히포는 강한 자극에 마음이 움직였다.  
—아! 시인, 당신이셨군요.  
—누구라고 생각했나?  
—제 아내요.  
—여기 사망자들 사이에 없다면 곧 그녀를 찾게 될 거네. 하지만 그 총은 숨겨둬. 정부의 충성스러운 부대가 도시를 장악했고 무장한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죽이고 있거든.  
령히포는 그의 어깨에 메고 있던 총을 내려 땅에 부러뜨리려 했지만, 시인이 두 손으로 그를 저지했다.  
—간직하고 있거나, 형제여. 내일, 아주 일찍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게 될 거야! (128)

타마요는 총을 버리려 하는 령히포를 만류하며 간직하고 있을 것을 조언한다. 그리고 “간직하고 있거나, 형제여. 내일, 아주 일찍 우리는 그

것이 필요하게 될 거야!”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문장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마토코’의 사망으로 삼시간에 일어난 민중의 저항은 끝났지만, 이는 완전한 끝이 아니라 이후에 ‘라 비올렌시아’라는 기나긴 분쟁의 역사로 이어질 서막임을 상징하는 대목이다. 이제 막 깨어난 젊은이에게 타마요의 말을 빌려 사파타 올리베야는 1948년에 일어난 민중의 저항은 일시적인 각성이 아니라 1960년대 중반까지,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될 콜롬비아 폭력의 역사에 맞서야 하는 투쟁의 시작점일 뿐임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독자에게 소설 속 대부분의 등장인물처럼 이름도 기억되지 못한 역사 속 범민들의 투쟁과 희생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며 저항의 연속성을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

## VI. 나가며

19세기 보수당과 자유당 양당의 엘리트 정치 집단 그리고 정부와 가톨릭교회 간에 일어났던 분쟁의 구도는 20세기 보고타소를 기점으로 정부와 시민 간의 분쟁 구도로 바뀌었다. 이후 도시에서 시작한 폭력사태는 콜롬비아 전역,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파되었다. 이 시기에는 크고 작은 충돌이 셀 수 없을 만큼 발생하였는데, 문제는 갈등의 발생 원인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 기인했으며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이였다. 보고타소로 시작되어 라 비올렌시아까지 이어진 폭력의 궤적은 1964년에 공식적으로 종식되지만, 오랜 기간 진행되었던 분쟁의 역사는 콜롬비아에 상흔을 남겼다. 수도인 보고타에서 일어났던 폭력사태는 1960년대까지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충돌로 이어지며, ‘라 비올렌시아’라는 용어는 그 기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총칭으로 사용된다.

마누엘 사파타 올리베야의 소설 『10번가』는 한 인물의 죽음으로 축

발된 시민들의 반발을 다루고 있지만, 그 사건이 보고타소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작가는 보고타소 직후에 쓰기 시작한 소설이지만, 소설에는 ‘가이탄’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는 이 소설에 1948년 4월 9일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는다. 작가가 카메라로 비추는 듯한 ‘행동주의적 기법’, 본인의 거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제 지명,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들과 신문 등 사실적인 요소 등을 이용하여 사파타 올리베야는 당시 시대상을 현실적으로 묘사하며 보고타소라는 실제 사건을 다룬다. 그러면서도 시기를 비틀거나<sup>7)</sup> 허구의 인물들을 등장시켜 그 사건을 문학적으로 구현한다. 이를 통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재평가하고 재구성함으로써 그 안에 감춰진 정치성을 강조하고 폭로하고 있다.

이 작품은 시민의 저항을 촉발한 보고타소가 그 이전에 이미 시민을 향한 정부의 소외와 억압에서 비롯된 비극적 학살이었다는 점을 고발한다. 이처럼 사파타 올리베야는 이 작품을 통해 정부와 권력의 사각지대에 놓인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콜롬비아의 오랜 갈등과 폭력의 역사를 기억하려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10번가』는 문학적 기법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함으로써, 공식 역사가 담아내지 못한 민중의 기억과 경험을 복원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향후 콜롬비아 현대 문학에서 보고타소와 같은 국가적 트라우마가 어떻게 재현되고 해석되는지를 탐구하는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나아가, 사파타 올리베야의 작품이 폭력의 근원을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문학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 사회 비판과 문제 제기의 역할을 한다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

7) 보고타소의 기점이라고 하는 가이탄 사망 시기는 1948년이지만, 소설 속 반란의 시작이 된 마마토코의 사망 시기는 그보다 5년 먼저인 1943년이다.

## ■ 참고문헌

- 박도란(2023), 「아프로콜롬비아 민족의 문화적 투쟁: 흑인클럽에서 흑  
인공동체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오토피아』, 38(1), 97-120.
- \_\_\_\_\_(2024), 「20세기 중후반 콜롬비아의 국민 역사 교육: 보고타소  
(Bogotazo)와 갈등의 역사 침묵시키기」,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5(2), 131-156.
- Alzate, Sandra L.(2011), "La relatividad de la verdad: Testimonio,  
narración y memoria en la obra de Manuel Zapata Olivella",  
*Afro-Hispanic Review*, Vol. 30, No. 1, 31-46.
- Arias Trujillo, R.(2011), *Historia de Colombia contemporánea, 1920-2010*,  
Bogotá: Universidad de los Andes.
- Díaz-Granados, José Luis(2003), *Manuel Zapata Olivella, su vida y su obra*.  
[https://skat.ihmc.us/rid=1T2XF1YCL-24X1V1W-4296/MZO-SuV  
idayObra.pdf](https://skat.ihmc.us/rid=1T2XF1YCL-24X1V1W-4296/MZO-SuVidayObra.pdf) (검색일: 2025.08.26.)
- García, María del Pilar(2013), *Bogotá desde la periferia: Mujeres,  
negros e indigentes en tres novelas del Bogotazo*, Alemania:  
Editorial Académica Española.
- Melo Ruiz, Hécor(2022), "Representaciones letradas de la radio, la  
prensa y el intelectual en dos novelas del bogotazo", *Cuadernos  
de Literatura*, Vol. 26. [https://revistas.javeriana.edu.co/index.php/  
cualit/article/view/36346/28497](https://revistas.javeriana.edu.co/index.php/cualit/article/view/36346/28497) (검색일: 2025.08.19.)
- Palacios, George Palacios(2018), "De rebeldías y revoluciones: perspectivas  
críticas desde abajo y desde Oriente en el pensamiento de Manuel  
Zapata Olivella", *Estudios de Literatura Colombiana*, No. 42,  
117-138.
- Pedraza Quinche, Lida Marcela(2016), "En Bogotá no mataban a nadie,  
mucho menos a un político como Gaitán"(2016.10.13.), *El*

*Espectador*, <https://www.elespectador.com/el-magazin-cultural/en-bogota-no-mataban-a-nadie-mucho-menos-a-un-politico-como-gaitan-article-660050/> (검색일: 2025.8.23.)

Rodríguez Ávila, Sandra Patricia(2016), *Memoria y olvido: usos públicos del pasado en Colombia, 1930-1960*, Bogotá: Editorial Universidad del Rosario; Universidad Nacional de Colombia.

Zapata Olivella, Manuel(1960), *La calle 10*, Cali: Universidad del Valle, 2020.

El Tiempo(2001.05.15.), "Quién mató a Mamatoco I", <https://www.eltiempo.com/archivo/documento/MAM-512894> (검색일: 2025.8.23.)

La Nueva Prensa(2020.07.13.), "De Mamatoco a Gaitán: el combate de un púgil que añoraba pasar a la historia y lo consiguió". <https://www.lanuevaprensa.com.co/component/k2/de-mamatoco-a-gaitan-el-combate-de-un-pugil-que-anoraba-pasar-a-la-historia-y-lo-consiguio>. (검색일: 2025.8.23.)

❖ ABSTRACT

The Literary Reconstruction of the Political  
Violence in Bogota in the Novel *La calle 10*

Park, Dora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the 'Bogotazo,' a period of political violence in Colombia, is reinterpreted in Manuel Zapata Olivella's novel, *La calle 10*. While traditional historical accounts often view the Bogotazo as mere political unrest,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author's narrative strategy, which brings to light the microhistories of individual lives and communities.

In *La calle 10*, the social tensions and conflicts of 1940s Bogotá are vividly portrayed through the voices of marginalized people frequently omitted from official history. The author argues that the violence of the Bogotazo was not just a riot but a tragic consequence of the government's long-standing oppression and neglect of its citizens. Zapata Olivella serves as a spokesperson for those overlooked by power, delivering a compelling political message that seeks to remember Colombia's history of conflict and violence.

Ultimately,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literary contributions of *La calle 10* to the Colombian historical narrative, highlighting how the novel critiques state contradictions and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resistance and memory through the experiences of its peripheral characters.

Keywords: *La calle 10*, Bogotazo, La Violencia, Colombian literature,  
Manuel Zapata Olivella

- 논문투고일 : 2025. 09. 10
- 심사완료일 : 2025. 09. 25
- 게재확정일 : 2025. 10. 07